

보도시점 2025. 8. 25.(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5. 8. 22.(금)

## 아·태지역, 국제환경협력의 핵심 매개체로 거듭난다

- 환경부,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여, 제7차 유엔환경총회 결의안 초안 검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태평양 국가 피지의 나디(피지 바레부섬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이하 아·태환경장관회의)’에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총회(UNEA)의 지역별 사전회의다.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당사국(41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아·태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번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올해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7)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4차 아·태 환경장관회의는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수원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피지는 아·태지역 군소도서국(SIDS) 중에서 첫 번째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유치한 국가다. 그간 피지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산호생태계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3대 위기(△기후 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의 지구)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6.5., 제주)에서 발표한 순환경제실천 행동구상을 발전시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환경 협력 결의안 초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문제를 국가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정밀한 현황진단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고, △유엔 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환경난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며, △순환경제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국제환경협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이번 아·태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제기구 등이 공동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아·태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경제 달성과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차기 유엔환경총회의 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 협치(거버넌스)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순환경제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제협력 매개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태환경장관포럼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044-201-6573)

- 유엔환경총회(UNEA) 준비를 위한 아·태 지역 장관급 사전 회의
  -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아·태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고위급회의 및 장관회의로 구성
- Rio+20('12.6, 브라질 리우)에서 UNEP 역할강화 결정, 기존의 UNEP 집행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로 개편
  -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 협의체\*와 UNEP 간 협력관계 유지
    - \* 아프리카(African Environmental Conference, '85-), 중동(Council of Arab Ministers Responsible for Environment, '99-), 남미(regional meetings of environment, '82-)
      - 태국·UNEP 공동주최로 제1회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15.5)
  - 제2차 UN 환경총회('16.5)에서 “지역별 환경장관 포럼의 역할” 강화 결의
    - UNEP이 지원한 지역 환경포럼의 성과를 환영하며, 포럼들이 유엔 환경총회 준비와 후속조치를 위한 중요 플랫폼임을 인식

아·태 환경장관포럼	유엔환경총회
제1차 아·태포럼('15.5, 방콕)	제2차 UNEA('16.5, 나이로비)
제2차 아·태포럼('17.9, 방콕)	제3차 UNEA('17.12, 나이로비)
제3차 아·태포럼('19.1, 싱가포르)	제4차 UNEA('19.3, 나이로비)
제4차 아·태포럼('21.10, <b>한국 수원</b> )	제5차 UNEA('22.2, 나이로비)*
제5차 아·태포럼('23.10, 스리랑카)	제6차 UNEA('24.2, 나이로비)
<b>제6차 아·태포럼('25.8, 피지)</b>	제7차 UNEA('25.12, 나이로비)

\* 2년 주기 개최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22년 개최

- 우리나라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의장국 수입

\* '21.10.5~10.7, 경기도 수원